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457

June 20, 2023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5
Tankers	9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Issue & Trend	19
Contact Details	20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NEWS

### 1. 한은총재 "美 연준, 금리 한 번 더 올릴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확실히 한 번 더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용 총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를 봤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확실히 올릴 것"이라며 "시장에서도 한 번 정도는 확실히 올릴 것으로 염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번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0%~5.25%로 동결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동안 10회 연속 500BP(1B=0.01%포인트) 인상했다.

이창용 총재는 "연준이 오는 8월, 9월, 10월 예정된 FOMC에서 50%포인트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국내 시장에도 메시지로 다가올 것이고 파급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 번 올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확실히 한 번 더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용 총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를 봤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확실히 올릴 것"이라며 "시장에서도 한 번 정도는 확실히 올릴 것으로 염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번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0%~5.25%로 동결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동안 10회 연속 500BP(1B=0.01%포인트) 인상했다.

이창용 총재는 "연준이 오는 8월, 9월, 10월 예정된 FOMC에서 50%포인트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국내 시장에도 메시지로 다가올 것이고 파급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 번 올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최창호 조사국장은 "최근 국내 근원물가는 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경직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빠르게 둔화해 근원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는 농산물, 에너지 가격처럼 외부 충격으로 가격이 급격히 변하는 항목을 제외한 지표다.

## I . NEWS

최창호 조사국장은 “경직적인 근원 인플레이션 흐름은 누적된 비용인상압력의 파급영향에도 기인한다”며 “근원물가가 더디게 둔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호주에선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와 호주는 최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 국가들이다. 캐나다의 4 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4%로 전월(4.3%)보다 높아졌다. 호주의 4 월 CPI 는 캐나다보다 더 높은 6.8%에 달했다.

최 조사국장은 “캐나다와 호주의 근원서비스물가 오름세는 주택시장 상승, 민간소비 증가, 노동시장 수요 상황과 관련됐다”며 “한국은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주택가격이 많이 조정됐지만 서비스 소비와 고용 상황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2.0%)을 웃도는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물가 여건과 향후 물가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 '메탄올 추진선' 탈탄소시대, 해운·조선업계 블루오션 되나

탈탄소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선·해운 업계가 '대체연료' 찾기에 분주하다. 일단, 메탄올이 대세인 분위기다. 중국 조선사들이 메탄올 추진 선박에서도 저가 수주 전략을 펼치면서 업계 안팎의 우려가 크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대외환경을 고려하면 국내 조선사들의 시장 선점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18 일일 조선·해운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조선 계열사인 HD 현대중공업은 내년 1 월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가 발주한 1 만 6200TEU 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한다. 앞서 머스크는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각각 18 척, 1 척의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 도 지난 2 월 국내에서 최초로 9000TEU 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 김규봉 HMM 해사총괄 상무는 “9000TEU 급 메탄올 컨테이너 컨테이너선을 현대삼호중공업과 HJ 중공업에 처음으로 9 척을 발주했으며 오는 2025 년 4 월, 2026 년 5 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I . NEWS

메탄올 추진선 발주가 늘어난 데는 '탄소 배출' 영향이 가장 크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부터 현존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를 도입하며 선박 탄소배출량 규제에 나섰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 연료보다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연료다. 특히 온실가스는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시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LNG와 비슷한 힘을 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큰 부피의 탱크가 필요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다양한 대체 연료가 있지만 해운 시장에서 메탄올이 대세로 가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단점을 가장 빨리 보완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조선 3사 가운데 메탄올 추진선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은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엔진과 연료 시스템을 장착했다. 수요도 상당한 데다 선가까지 높아 조선업계 입장에선 차세대 효자 선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메탄올 추진선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이라며 "LNG 운반선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국 조선사들의 가격 공세다. 세계 4위 컨테이너 선사인 프랑스 CMA CGM은 지난해 8월 중국 다렌 조선에 1만 5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다. 머스크도 최근 중국 양지장 조선과 8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8척에 대한 건조계약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에 시장 안팎에선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의 물량공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하지만, 국내 조선사의 관련 기술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고, 미·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당분간 서방쪽 발주가 국내로 쏠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선박을 주로 발주하는 대형해운사는 그리스,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대개 중도적인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미·중 관계의 악화일로가 길어질수록 국내에 어떤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3. "러, 유가 상한제로 반년간 거둔 세금 50% 줄어"

러시아산 원유 및 정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 지 반년 만에 러시아가 원유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5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서방 측 주장이 나왔다.

## I . NEWS

15 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차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신미국안보센터(CNAS) 행사에서 "유가 상한제가 도입된 결과 올해 첫 5 개월 동안 러시아의 석유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경제는 몇 년 전의 경제와 전혀 닮지 않았다"며 "유연성이 떨어지고 성장 능력이 떨어진다. 가장 큰 부의 원천(석유)은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에 직면해 공황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데예모 차관은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될 때보다 현재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하고 있지만,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석유가 다른 석유에 비해 25%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적은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4 월에도 러시아 정부 예산의 가장 큰 원동력인 석유 및 천연가스 세수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러시아 세수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 정부는 예산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판매로 인한 세금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석유 판매를 통해 전쟁 자금을 충당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정유 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지난해 12 월 5 일부터 시작됐다. 원유의 경우 배럴당 60 달러 이하(약 7 만 6600 원)의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만 해상 운송 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미국과 EU는 이러한 가격 상한제를 러시아산 정유 제품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 등에 싼 가격으로 석유를 팔아치우며 서방의 제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러시아가 지난 4 월 산적한 520 만 배럴의 원유 가운데 중국이 210 만 배럴, 인도가 200 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가 산적한 원유의 80%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러시아의 최대 석유기업 로즈네프트는 최근 대규모 석유 판매를 위한 장기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로즈네프트가 경매의 일종인 입찰 형태로 판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인도·튀르키예 등이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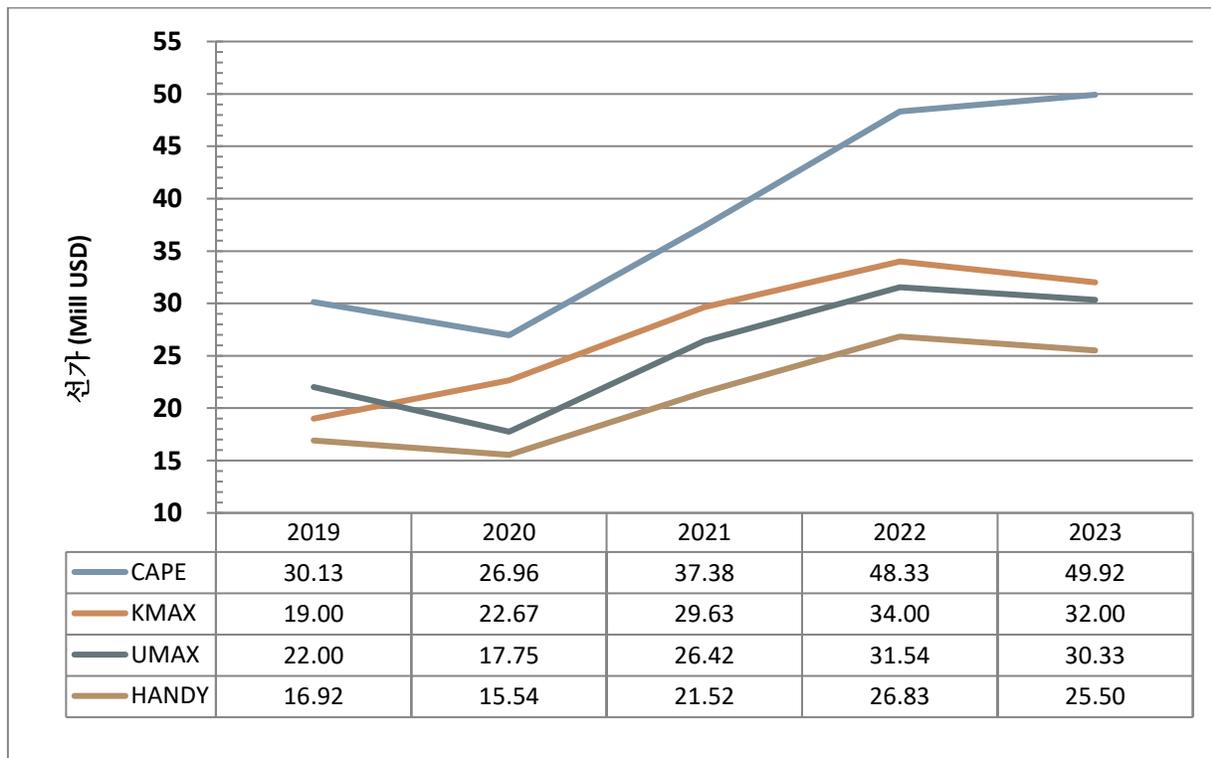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9	2020	2021	2022	2023
<b>Capesize 180K</b> <small>*Eco-design based since 2021</small>	30.13	26.96	37.38	48.33	49.92
	-14.34%	-10.51%	38.64%	--	3.28%
<b>Kamsarmax 82K</b> <small>*76k before 2020</small>	19.00	22.67	29.63	34.00	32.00
	0.42%	19.30%	30.70%	14.75%	-5.88%
<b>Ultramax 60-61K</b>	22.00	17.75	26.42	31.54	30.33
	--	-19.32%	48.83%	19.40%	-3.83%
<b>SMAX 58K</b> <small>*Data available before 2021</small>	17.17	15.92	--	--	
	-4.20%	-7.28%	--	--	
<b>Handysize 37K</b>	16.92	15.54	21.52	26.83	25.50
	12.18%	-8.13%	38.47%	24.69%	-4.97%

###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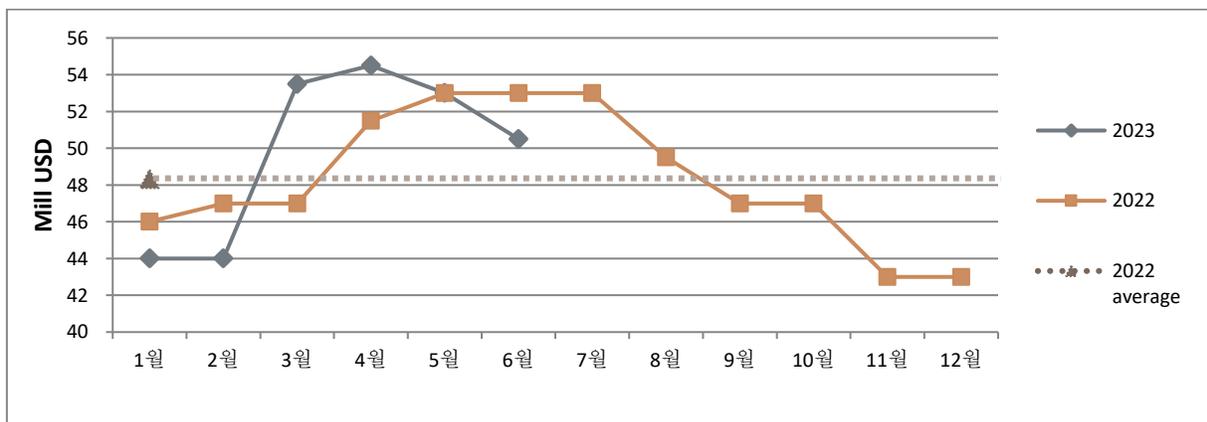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CAPE (180K, Eco.)	선가	44.00	44.00	53.50	54.50	53.00	50.50	49.92
	전월대비	2.3%	0.0%	21.6%	1.9%	-2.8%	-4.7%	--
	전년대비	-4.3%	-6.4%	13.8%	5.8%	0.0%	-4.7%	3.3%
KMAX (82K)	선가	30.00	30.00	32.50	34.00	33.00	32.50	32.00
	전월대비	0.0%	0.0%	8.3%	4.6%	-2.9%	-1.5%	--
	전년대비	-11.8%	-13.0%	-8.5%	-6.8%	-13.2%	-14.5%	-5.9%
UMAX (60-61K)	선가	28.50	28.50	31.50	32.00	31.00	30.50	30.33
	전월대비	1.8%	0.0%	10.5%	1.6%	-3.1%	-1.6%	--
	전년대비	-6.6%	-12.3%	-4.5%	-5.9%	-8.8%	-11.6%	-3.8%
HANDY (37K)	선가	24.50	24.50	26.00	26.50	26.00	25.50	25.50
	전월대비	4.3%	0.0%	6.1%	1.9%	-1.9%	-1.9%	--
	전년대비	-10.9%	-12.5%	-7.1%	-7.0%	-8.8%	-10.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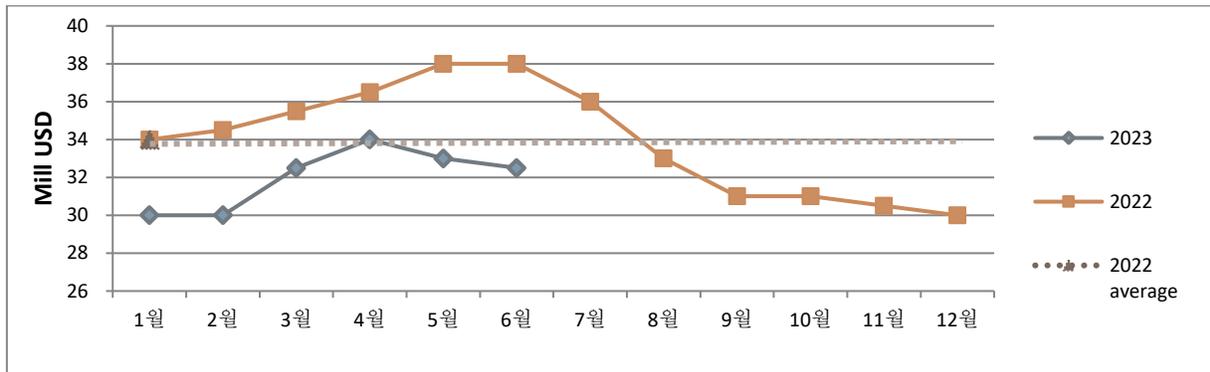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CAPE (180K, Eco.)	46.00	47.00	47.00	51.50	53.00	53.00	48.33
KMAX (82K)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4.00
SMAX (58K)	30.50	32.50	33.00	34.00	34.00	34.50	31.54
HANDY (37K)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6.83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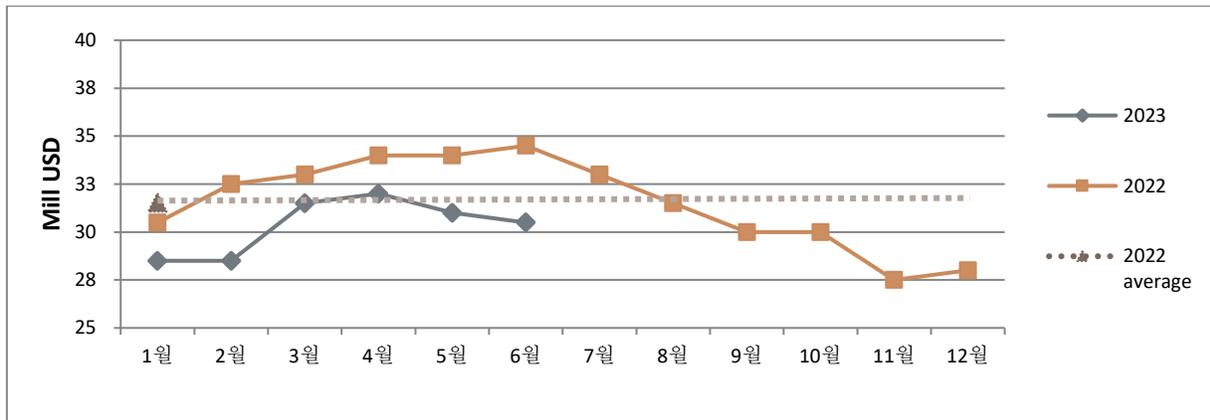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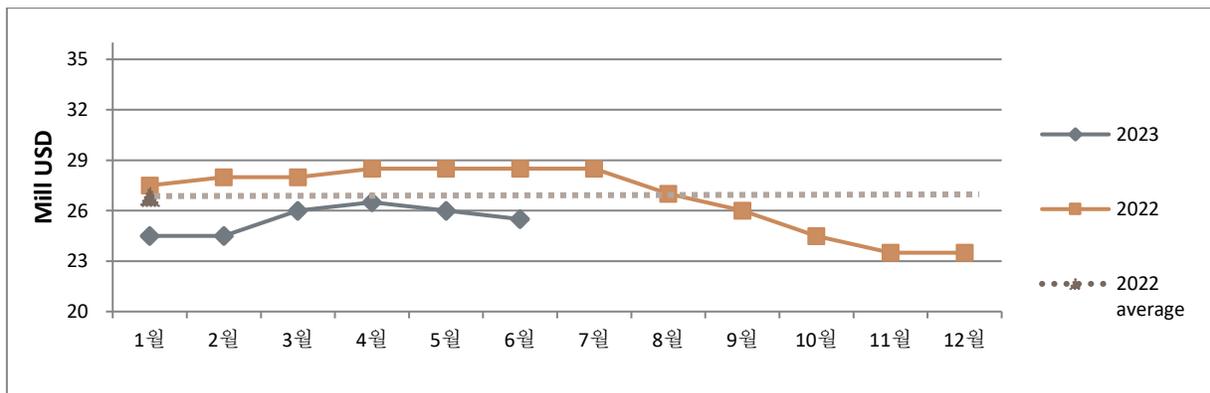
### □ Kamsarmax



### □ Ultramax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HERUN ZHEJIANG	181,056	2017	CHINA	B&W		41.5	Greek buyer
BC	ATLANTIC TIGER	180,182	2006	JAPAN	B&W		16.8	Singaporean buyer (Winning Shipping)
BC	DANHIL	81,354	2012	KOREA	B&W		23.5	Undisclosed buyer
BC	JY BULK	81,112	2018	CHINA	B&W		28.49	Undisclosed buyer, auction
BC	MAGIC TWILIGHT	80,700	2010	KOREA	B&W		17.5	Undisclosed buyer
BC	CORINTHIAN EMERALD	57,592	2012	KOREA	B&W	C 4x30t	19	Undisclosed buyer
BC	NEW DIRECTION	56,097	2013	JAPAN	B&W	C 4x30t	19.8	Undisclosed buyer
BC	OCEANIC LEADER	53,800	2006	CHINA	B&W	C 4x36t	11	Middle Eastern buyer
BC	PACIFIC CYPRESS	38,055	2012	JAPAN	B&W	C 4x30.5t	16	Undisclosed buyer
BC	GREENERY SEA	35,000	2012	CHINA	B&W	C 4x30t	12.6	Greek buyer, log f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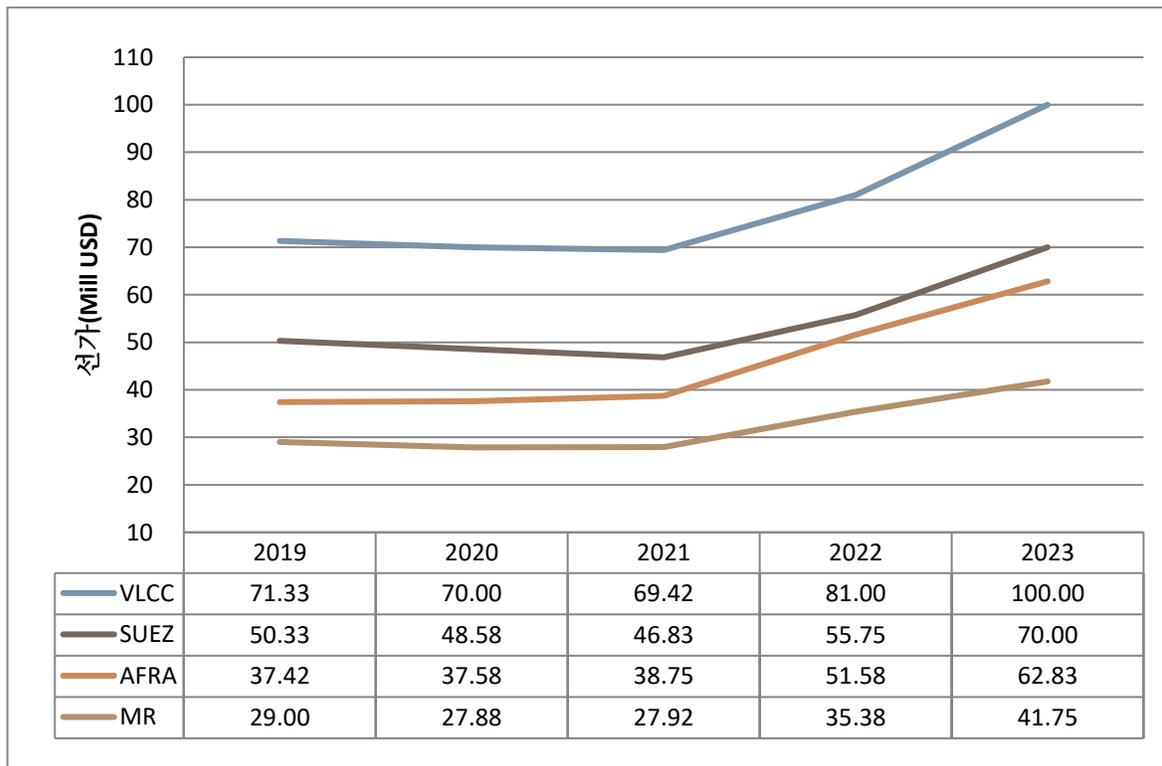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VLCC (310K)	71.33	70.00	69.42	81.00	100.00
	10.73%	-1.87%	-0.83%	16.69%	23.46%
Suezmax (160K)	50.33	48.58	46.83	55.75	70.00
	15.60%	-3.48%	-3.60%	19.04%	25.56%
Aframax (105K)	37.42	37.58	38.75	51.58	62.83
	17.85%	.45%	3.10%	33.12%	21.81%
MR (51K) <small>*Based on 49K till 2018</small>	29.00	27.88	27.92	35.38	41.75
	9.43%	-3.88%	.15%	26.72%	18.02%

###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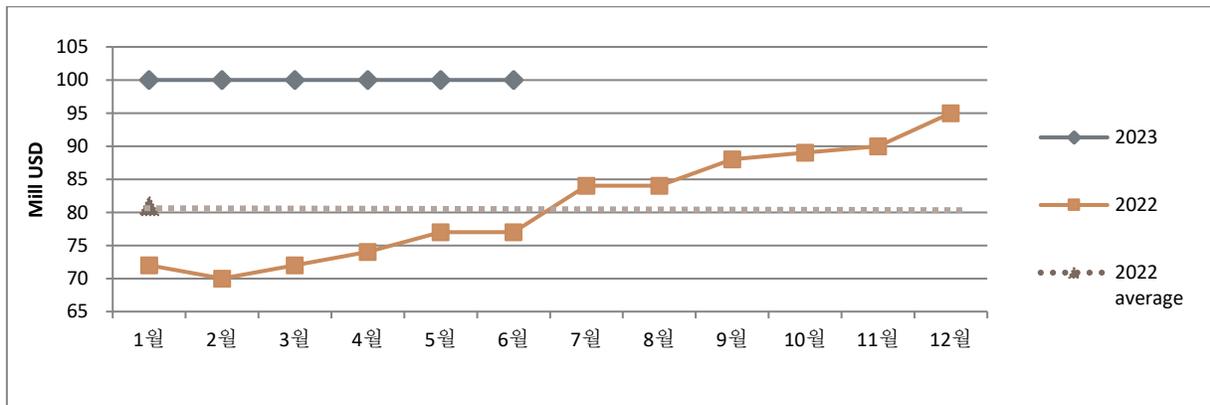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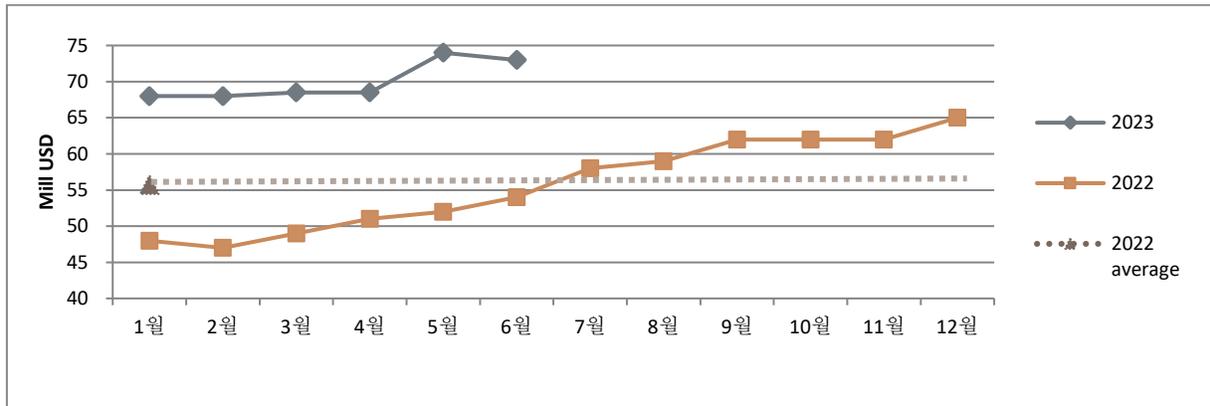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VLCC 310K	선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월대비	5.3%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38.9%	42.9%	38.9%	35.1%	29.9%	29.9%	23.5%
SUEZ 160K	선가	68.00	68.00	68.50	68.50	74.00	73.00	70.00
	전월대비	4.6%	0.0%	0.7%	0.0%	8.0%	-1.4%	-
	전년대비	41.7%	44.7%	39.8%	34.3%	42.3%	35.2%	25.6%
AFRA 105K	선가	62.50	62.50	62.50	62.50	63.50	63.50	62.83
	전월대비	4.2%	0.0%	0.0%	0.0%	1.6%	0.0%	-
	전년대비	38.9%	38.9%	38.9%	33.0%	29.6%	29.6%	21.8%
MR 51K	선가	41.50	41.50	41.50	42.00	42.00	42.00	41.75
	전월대비	3.8%	0.0%	0.0%	1.2%	0.0%	0.0%	-
	전년대비	38.3%	38.3%	43.1%	29.2%	25.4%	25.4%	18.0%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year 평균
VLCC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1.00
SUEZ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5.75
AFRA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1.58
MR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5.38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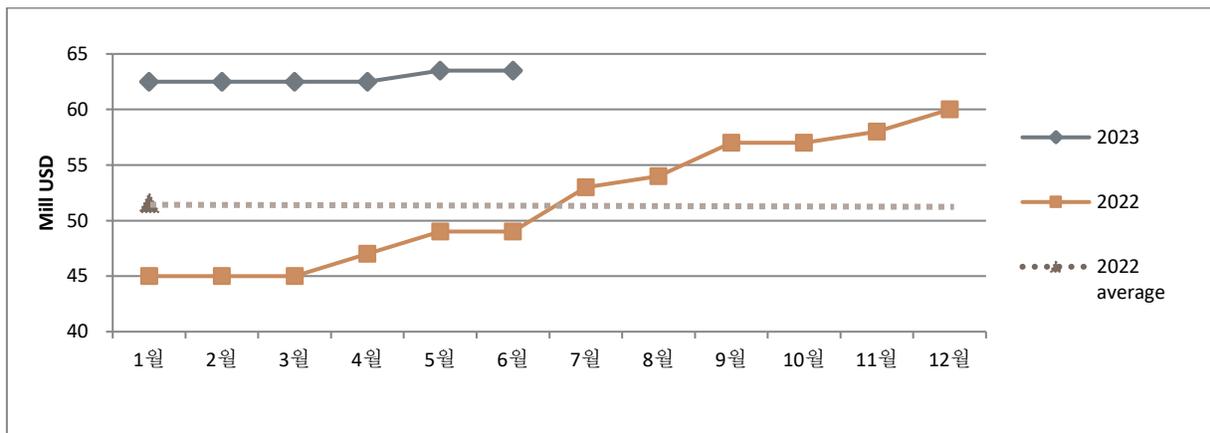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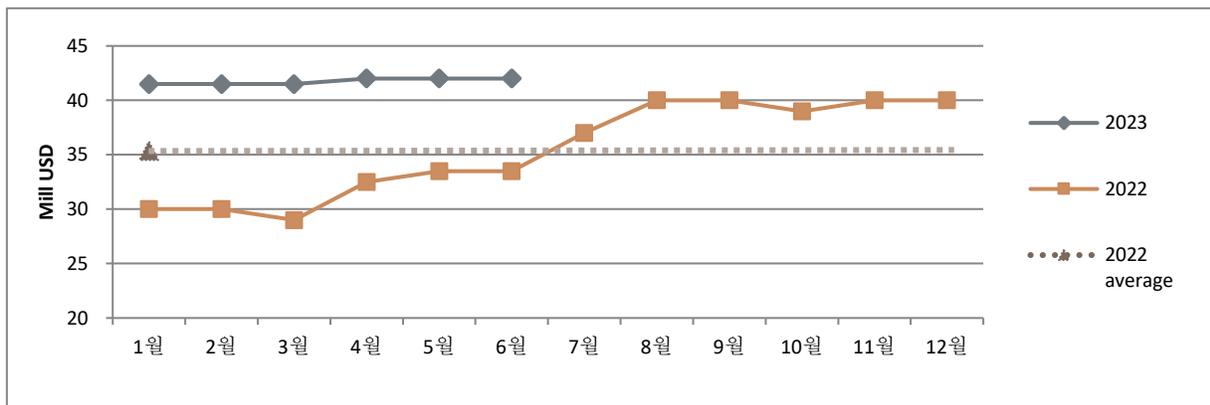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51K



### III. TANKER

####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RIDGEBURY JUDITH	150,393	2008	JAPAN	SULZER		38	Greek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BERICA	115,146	2008	JAPAN	B&W		--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TANKER	FAROS	74,999	2005	KOREA	B&W		18	Turkish buyer, epoxy coated
TANKER	ANFA	47,975	2010	JAPAN	B&W		24.5	Undisclosed buyer, DPP
TANKER	GULF JUMEIRAH	46,522	2008	KOREA	B&W	2	23.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N2 gen fitted
TANKER	MERMAID	11,262	2006	KOREA	B&W	2	8.25	Undisclosed buyer, ML & epoxy coated
TANKER	PEARL MERCURY	7,991	2018	CHINA	YAN		--	Danish buyer (Monjasa), epoxy coated
OIL/CHEM	RT STAR	26,199	2011	JAPAN	B&W		24	Undisclosed buyer, stst
OIL/CHEM	ESHIPS BARRACUDA	13,146	2006	KOREA	MAK	2&3	9.3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 III. TANKER

####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AS EMMA	50,000	2010	CHINA	MAN	4256	TEU	22	Undisclosed buyer
CONT	NORTHERN DEDICATION	42,121	2007	CHINA	B&W	3534	TEU	17.5	UAE buyer (Global Feeder Shipping)
CONT	NORTHERN DEFENDER	42,121	2007	CHINA	B&W	3534	TEU	17.5	
CONT	NORTHERN VIGOUR	37,800	2005	GERMANY	B&W	2742	TEU	17	Swiss buyer (MSC)
CONT	ELLA	33,216	2003	JAPAN	B&W	2450	TEU	14	Swiss buyer (MSC)
CONT	QUEEN ESTHER	25,294	2016	CHINA	B&W	2190	TEU		
CONT	LONDON TRADER	23,221	2019	CHINA	WINGD	1762	TEU		
CONT	MADRID TRADER	23,221	2019	CHINA	WINGD	1762	TEU	136.4 -5EB	Norwegian Buyer (MPC Container Ships)
CONT	TRIESTE TRADER	23,221	2019	CHINA	WINGD	1762	TEU		
CONT	B TRADER	23,221	2019	CHINA	WINGD	1762	TEU		
CONT	MARFRET MARAJO	21,244	2008	KOREA	B&W	1713	TEU	--	Panamanian buyer (Interocean Trans)
CONT	KYOKUYO 568	11,817	2023	JAPAN	B&W	1096	TEU	26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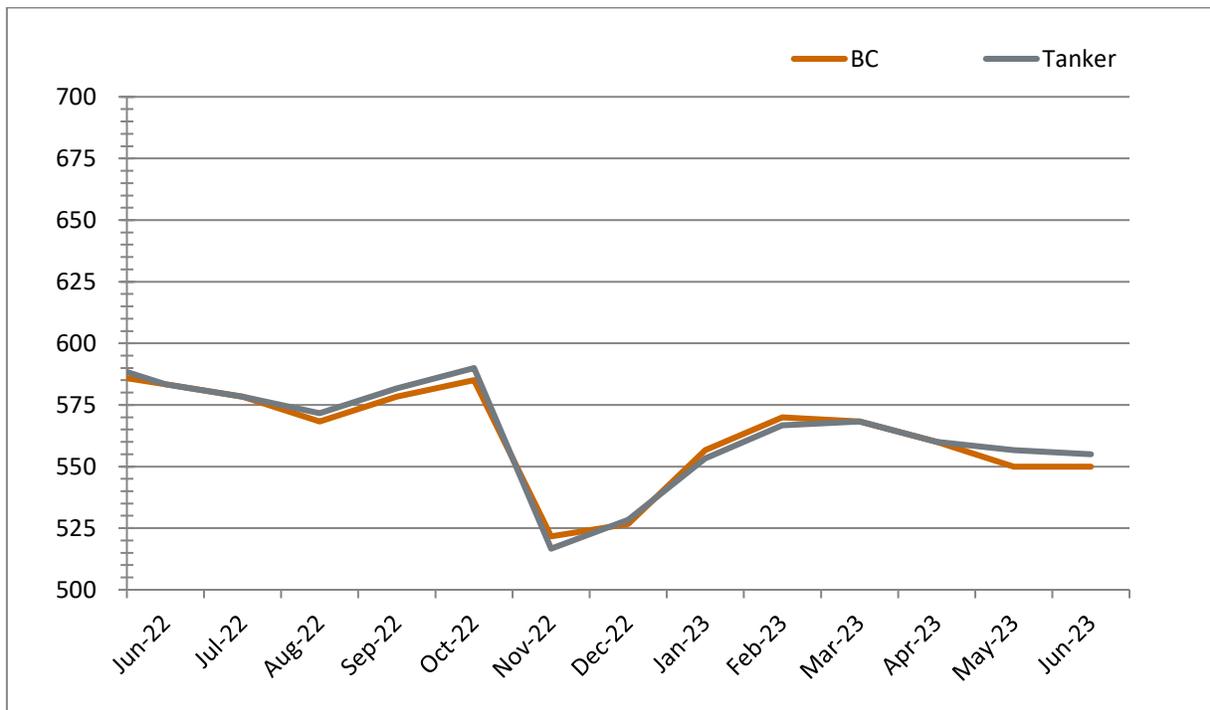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해체선가

	2021 Average		2022 Average		2023 Average		2022 June	2023 June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526.81	52.9%	590.28	12.0%	560.00	-5.1%	583.33	555.00	-0.3%	-4.9%
BC	529.17	53.6%	588.56	70.8%	559.17	-5.0%	583.33	550.00	0.0%	-5.7%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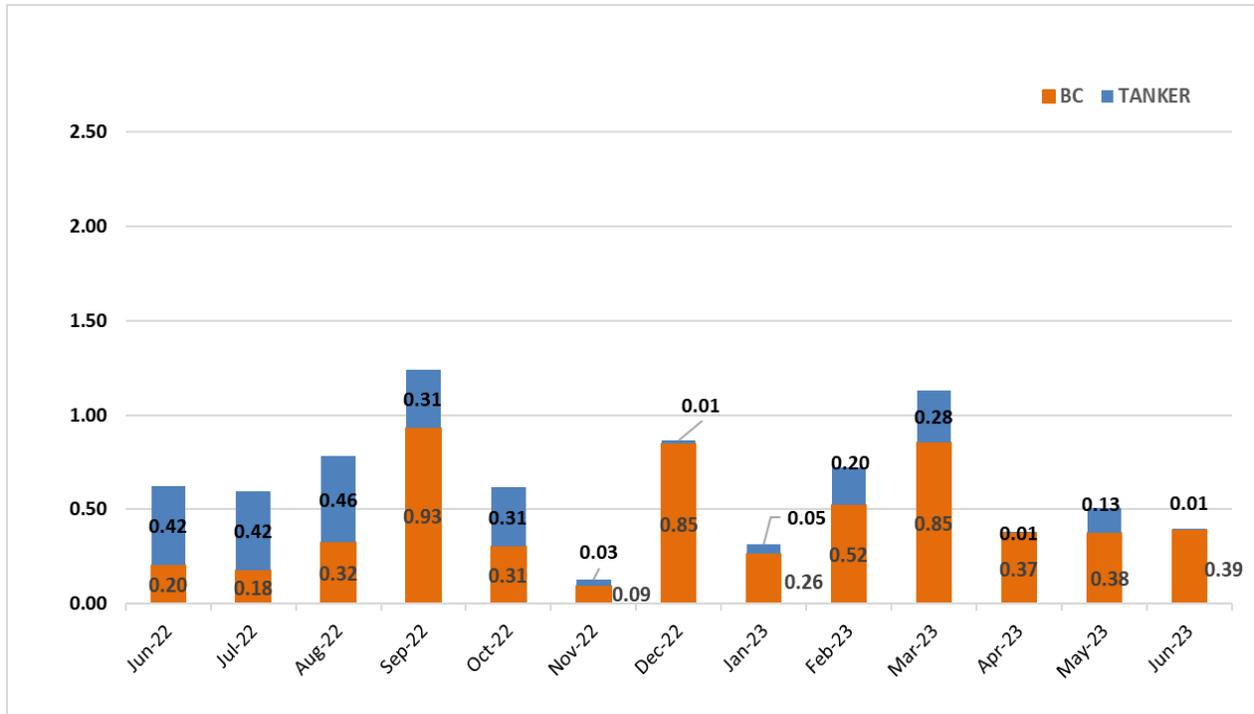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1		2022		2022 June		2023 June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YoY	No. of Vessel	YoY
TANKER	15.66	315	6.50	134	0.42	10	0.01	-98.7%	3	-70.0%
*BC	6.34	123	4.48	63	0.20	5	0.39	94.8%	8	60.0%

\*BC incl. General cargo vessel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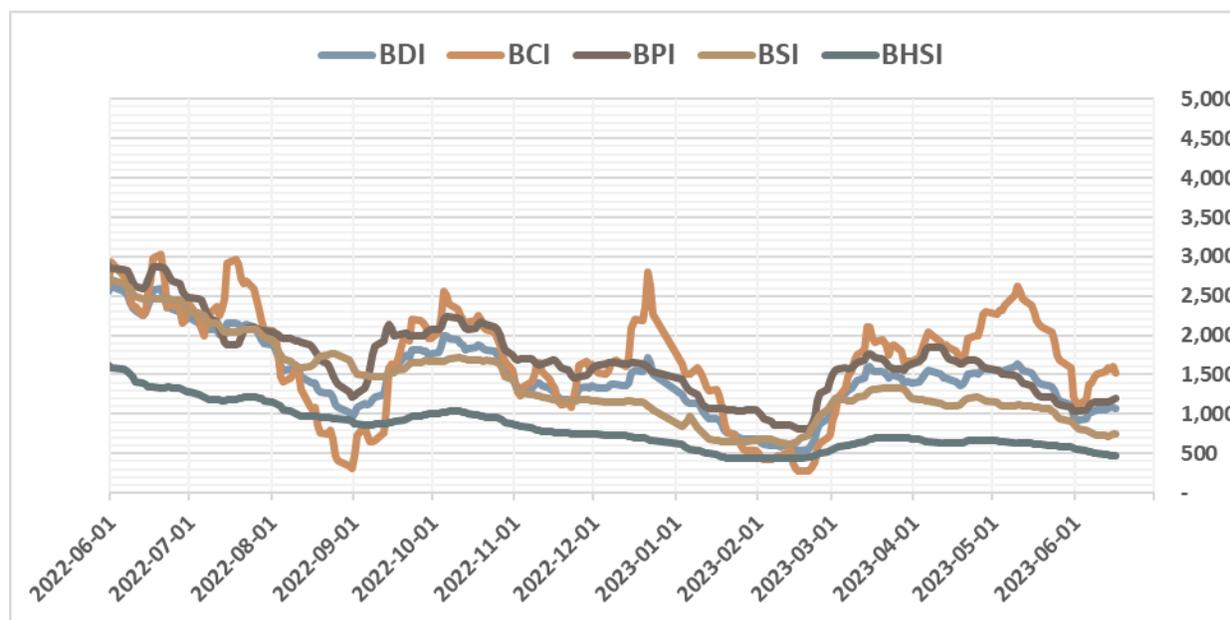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MSC KERRY	45,530	15,580	1995	POLAND	SULZ	540	INDIAN
CONT	SCO QINGDAO	10,010	3,759	1997	CHINA	WART	610	BANGLADESHI



## V .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23-06-16	2023-06-09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1,076	1,055	▲21.00	3,369	530
BCI	1,528	1,514	▲14.00	4,602	271
BPI	1,193	1,146	▲47.00	3,382	809
BSI	748	736	▲12.00	2,833	625
BHSI	464	501	▼37.00	1,673	431





## V .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602.00	▲16.50	550.50	▲10.50	526.50	▼6.00
MGO	726.50	▲10.50	724.00	▲34.00	727.00	▲12.50
LSMGO	726.50	▲10.50	724.00	▲34.00	-	-
IFO380	446.00	▲3.50	497.50	▲47.50	436.50	▲15.00

❖기준일 : 06 월 16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23-06-16	2023-06-09	CHANGE
미국 USD	1280.10	1306.10	▼26.00
영국 GBP	1637.25	1640.72	▼3.47
유로 EUR	1401.84	1408.50	▼6.66
중국 CNY	178.67	182.72	▼4.05
일본 JPY (100)	913.48	940.69	▼27.21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ISSUE & TREND

---

### [시사 상식]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3 월 국내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등 자본확충 3 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며 손실 흡수능력을 점검한다.

다만, 결과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당국이 개별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감독 조치를 할 근거가 없었고, 당국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통해 지난 2022 년 30 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했고, 유럽은 100 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대 4%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 VII. CONTACT DETAILS

STL GLOBAL CO., LTD.			
<b>Marino Hwang(황 재 응)</b> President T. 070-7771-6400			
<b>Fleet &amp; Chartering Operation</b> biz@stlkorea.com	<b>Sancho Kim(김 현 진)</b> Managing Director T. 070-7771-6404	<b>H.S. Lee(이 현 성)</b> Director T. 070-7771-6412	
	<b>Mike Hong(홍 창 목)</b> Director T. 070-7771-6417	<b>Henry S.H. Oh(오 수 현)</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2	
	<b>Anna Lee(이 혜 란)</b> Manager T. 070-7771-6403	<b>Joovi Park(박 주 비)</b>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19	
<b>Agency Operation</b> operation@stlkorea.com	<b>Jennifer Park(박 영 단)</b> Manager T. 070-7771-6407	<b>Hayden Son(손 호 영)</b>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01	
<b>Ferroalloy Logistics &amp; Warehouse Management</b> ops@stlkorea.com	<b>Jena Ahn(안 지 영)</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5	<b>Joanne Jin(진 정 식)</b> Manager T. 070-7771-6406	
STL SHIPPING CO., LTD.			
<b>Sale and Purchase Broking</b> snp@stlkorea.com	<b>Neal S.I. Kwon(권 순 일)</b> President T. 070-7771-6410		
	<b>Jack Kim(김 종 수)</b> Director T. 070-7771-6411	<b>Nova Cha(차 혜 정)</b> Team member T. 070-7771-6409	
T. 02-776-0840(Rep.)   E. seoul@stlkorea.com   W. www.stlkorea.com   (04146) 101-13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TOUR		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 영 하	T. 1661-8388 T. 070-4800-0151 W. www.stlgtour.com E.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 진 행 대리 이 정 택	T. 061-247-0331 T. 010-2777-4027 W. www.stlyacht.com E. academy@stlyacht.com